

buddhanews.com

# 이 자리가 지옥이고 이 자리가 바로 천당입니다!

## 25면에서 계속

넓은 지대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주먹을 쥐고선 팔 줄 모른다든 모두가 들어 아닌 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공생이며 공용이며 공제로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시공을 초월한 이 자체의 진리를 파악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내 한마디에 우주가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이 가설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 지혜가 풍부해지고 물리가 터집니다. 나를 믿되 나가 아닌 나를, 즉 주인공을 믿어라. 그리고 거기다가 일입해라. 그리고 거기서만이 이끌어 간다는 믿음을 가져라. 거기서만이 이끌어 가고 거기서만이 병도 낫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 그 모든 것은 거기서 나온 거니까요. 땅을 걸어가다가 옆드러져도 땅을 짚고 일어나야지 허공을 허우적거리서는 일어날 수가 없으니깐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모든 걸 일입하고 돌아간다면 안에서 작용을 해 줍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안에서는 작용을 해 주고 밖으로 약을 먹더라도 주인공과 틀어박혀 먹어야 하는 겁니다. 밥도 약입니다. 밥도 약이예요! 평소에는 사과나 어떤 과일을 먹는 것도 약입니다. 이 몸통이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전체가 약 안 되는 거 없죠. 그러나 환경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얘기도. 그러나 하나도 결핍 게 없어요. 불교라는 자체가 이렇게 광대하고 무변하기 때문에 내 종교니 네 종교니 하고 찾을 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가톨릭교를 믿든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지는 마세요. 기도를 하러 갈 때 하고 가정을 비워 놓고, 또는 남편을 굶주리게 하고 자식을 굶주리게 하고, 음식을 가리면서까지 잘되게 한다고 기도를 하러 석달 열흘을 가지도 않나 일주일도 가지 않나. 그러나 이것이 모두 헛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건건이 나쁜 일이지요. 집안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잘되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자기 알아 있는 자리에 부처든지 주체가 있는 거지 자기가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법당에도 오시면 여러분이 오셨기 때문에 거기 부처가 있는 거죠. 여기 스님네들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죠. 사람이 없으면 부처가 없다.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교회가 성당이든지 사람이 없으면 부처가 없고 주님이 없어요! 허허허... 그 뜻을 잘 알아내 보십시오. 자기만이 자기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나도 전에 고해성사까지도 해 봤지만 말입니다. 허허허...

하여튼 불교라는 게 그렇게 광대하고 무변한 겁니다. 그러나 일체가 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꼭 알고 가야만 되겠다는 얘깁니다. 우리는 지금 세세생생 쉼터 돌듯 하면서 웃이 더러우면 벗

어 버리고 또 새 옷 입고 이러듯이, 우리 몸통이는 한 찰 찰 찰 나와서 놀다 가는데 그냥 어떻게 노느냐에 따라서 또 주어지죠. 주어지면 그걸로 또 이 세상에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천당 지옥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은 그걸 실감 못할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모습, 즉 말하자면 무명이 씌워집니다. 개같이 산다면 개의 모습으로 나올 거고, 짐승같이 산다면 짐승의 모습으로 나올 거고 사람같이 산다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만약에 개로 뺏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개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옥이겠습니까

“

생활 속에서 살아나기면서

나쁜 생각을 하지 말고

나쁘게 들어오는 걸

좋게 생각을 돌려서

그 자리에 일임하라

”

까?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 자리가 지옥이고 이 자리가 바로 천당입니다. 무슨 지옥이 따로 있어서 가둬 놓는 데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한 찰나에 그냥 사람으로 뺏다가, 한 찰나에 그냥 딴 모습을 쓰고 나오게끔 돼 있죠. 그래서 삼천세계 중천세계 하천세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있는 곳은 중천세계라고 볼 수 있죠. 삼천세계로, 대천세계로 승진을 하느냐 하천세계로 떨어지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가는 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공부 할 때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바로 들어 아니다 이 소립니다. 과거심도 현재심이요 미래심도 현재심이다 이겁니다. 그걸 일일이 따진다면 헛갈려서 안 되겠지만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삼천 년 전이라 할 지라도 오늘날입니다. 삼천 년 후도 오늘날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가요? 허, 이해가 그렇게 안 가십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어저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어저께 해 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부딪치죠. 오늘 해 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 오늘이 있습니다. 내일 오늘이요. 그래서 삼천 년 전 오늘이나 삼천 년 후 오

늘이나 오늘 일심으로 일체 만법을 들고 낸다 이겁니다.

여러분, 정신세계는 뭐고 물질세계는 뭐가?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집을 짓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가 정신세계고, 설계도가 나왔을 때가 바로 물질세계입니다. 그럼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종합해서 집 한 채가 올라갑니다. 허허허... 여러분이 그렇게 여유하게 살면서 그것을 한번도 생각해 본 예가 없어요. 달력에 써 놓은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읽어 보세요.

수억겁을 거쳐서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진화하면서 나무면서 화하면서 이렇게 인간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진화해서 이렇게 온 것도 자기가 자기를 형성시키며 온 겁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의 정자 난자가 합하고 거기에 태어날 자기 영혼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삼합이 포함되지 않으면 어린이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형성될 수가 없는데 거기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적이 또 붙습니다. 영혼에 업적이 붙어서 형성된 인체 내부에 모든 회사가 들어섭니다. 간장 공장, 심장 공장, 콩팥 공장, 척수 척추 공장, 대장 소장 공장 이 모든 공장이 딱 몸통에 들어서서 작용을 해 주기 때문에 모두 부처님이시죠. 허허허... 그리고 다닐 수가 있죠. 말할 수가 있고 행동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적이라는 것이 모두가 그런 공장의 바로 공장장들이죠.

그러나 내가 마음을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는 대로 하나로 돼 주고, 또 내 마음이 그러로 든다면 그냥 한마음이 돼서 부처고요. 그래서 자(子)와 부(父)가 서로 상봉을 해야만, 과거에 살던 내 조상과 지금 현재의 내가 상봉을 해야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어린이를 낳은 셈이다 이겁니다. 육체적인 어린이 말고 정신적인 어린이로 태어났다. 정신의 어린이로 태어났다면 그게 또 성장하도록 길러야 되겠지요? 기르는데 체가 없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귀신 방구덩이를 더 먹이지도 말고 털 먹이지도 말고 길러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먹고 마음으로 조절해야 되는 거죠. 이 마음 다스림이 바로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계를 키워서 물질계를 모두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창조력을 길러서 창조를 하고 이러한 게 즉, 생활과학입니다. 부처님이 딴 거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마음 하나로 인해서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그냥 움죽거리고 돌아가는나라. 이 마음에 전체가 다 같이 호흡하면서 돌아가는나라. 본래 여러분이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재료로 쓰여지게 충만히 있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화풍이 바탕으로 돼 있으면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고마운 줄을 몰라요. 어떻습니까? 한번 고맷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아, 참 고맙다! 바람 공기가, 참 고맙다! 내 생명을 유지시켜

줘서 참 고맙다! 불아, 고맙다! 흙아, 고맙다! 해 봤습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걸어다니면서도 한번 고맙다고 해 봤습니까? 허허허...

하여튼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 있고 지수화풍을 먹고 살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처럼,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작용하게 하느냐를 알아야지요. 물질계와 정신계가 100% 같이 돌아가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전기줄과 전깃줄이 합해져야만 불이 들어올 수 있죠. 그렇듯이 우리가 마음이라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불을 켤 수가 없는 거죠. 자유스립질 못

“

나오는 데다 다시 입력한다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게 되니

내 몸이 편안하고

내 몸이 편안한 까닭에

부처는 편안하다

”

해요.

컴컴하다면 불을 켜서 밝은 데서 살고, 목이 마르면 물마시고, 땀이 마려우면 땀 누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사세요, 자유스럽게! 속이 더부룩하고 그럴 때 똥을 누면 시원하죠? 그 똥 누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생활하면서 살아나가는 데에 그거 이것저것 닦쳐오고 답답하고 그럴 땐 똥 누는 거나 똑같아요. 허허허... 그러니까 번비 생겨서 똥 못 누는 거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답답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파하고 나갈 수 있다면 아주 시원한 삶이죠. 그러니 모두 여러분의 한마음에 달려 있고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두에게 네 가지 재료가 주어졌으니 본래 있는 거 가지고 바로 중용을 하십시오. 모두 본래 가지고 있으니까요.

의사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 내가 박사님들더러 그러합니다. 박사님들께서 연구를 해서 못 고치는 병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그 병지는 또 판병으로 바뀌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업적을 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사 분들은 또 이 병이 어디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얼혀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병 이름을 알고도 못 고치는 병들이 많

습니다. 병 이름은 모두 여러분이 지어 놓은 거지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름들을 가지고 야단법석이죠.

그래서 그 박사님들더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잘한다고 해도 35%나 40%, 45%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나머지는 누가 총당을 합니까? 여러분이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온 거를 모르고 어디로 갈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타파 못하고 자유스럽게 헤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병원에선들 어떡합니까? 업보성으로 오고 영계성으로 오고, 세균성으로 오고 유전성으로 오고, 아, 이러는 놈의 거를 어떻게 의사가 치료를 해요? 정신세계의 마음공부를 안 했다면 그거를 알 수가 없으니깐 못하죠.

그러니 이 공부를 어느 분이고 모두 다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레야 조상의 목은 빛도 같을 수 있고 지금 자녀들에게 햇빛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재산을 모아서 주려고 하는데 재산을 모아 주기보다도 이 마음공부를 전달해서 뿌리가 싱싱하다면 나무도 싱싱하고 가지도 싱싱하고 잎새도 싱싱해서 열매가 굵고 아주 맛있게 열리고, 제 나무에서 실과는 익어 누구나 다 먹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만 안겨 줄 양으로 그냥, 자기가 병이 드는지 죽는 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한테 잘살게 해 줘야! 하는 소망만 가지고 뛰는 겁니다. 하기가 사는 날까지는 꼭 살겠지! 그렇지만 사는 날까지 살더라도 자유스럽게 살고 자유스럽게 가야죠. 웃이 더러우면 똥아 입어야겠다! 하고 똥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죠.

목탁을 두들기고 머리 깎고 회색 옷을 입는 것만이 불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증명을 하시고, 생활 속에서 꼭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모두 방편으로써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방편이란다고 또 거짓으로 알진 마세요. 거짓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별의별 게 나오는데 우리가 쫓 줄 알아야 그걸 다 볼 수 있다는 얘기도. 그리고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아이! 저놈은 알미워." 하는 소리도 나오고 "조놈은 아주 잘하는 데..."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텔레비전 화면과 같고 텔레비전 몸체와 같습니다. 텔레비전 속에 선 같은 것이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도 두뇌에,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 줄 알아야 쫓겨 몸체만 있으면 뭘 합니까? 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2년 11월 29일 진주지원 개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 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전통불교의식 수강생모집

### 기본과정

사물 다루는 법  
각단예불  
각단 각청 불공의식

### 49재 및 천도재 의식

범음범패  
상단관공 및 대령관육시식  
천수바라무 · 옹공양작법무

초 급 반 :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후 4시  
중 · 고급반 :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후 6시  
수 강 신 청 : (051)243-3165 H·P : 011-887-8600

※ 영남의식을 기준으로함  
※ 승속 관계 없이 재가불자도 수강 가능  
※ 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

## 범음범패 홍보원

홍은사 주지 성 각 합장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3가 31-153번지  
전화 : (051)243-3165 H·P : 011-887-8600

## 공 고

동울산 사암연합회에서는 제21기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10월29일 대원사에서 봉행하였다.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12명에게 360만원을 장학금으로 수여하며 18번째 행사를 봉행하고 있다.



회장 동파스님을 비롯, 놀암, 월타근스님 및 연합회 스님들은 연말에 일일 찾집행사 모금액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이날 행사에는 연합회 스님, 학부모, 학생 등이 동참하였다.

052)233-7176

##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사.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계약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해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해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5199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